

## 또래 배척과 관련된 유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and Preschooler's Exclusion by Peers :  
Mediated by Preschooler's Emotional Intelligence

정지나(Jee-Nha Chung)<sup>1)</sup>

민성혜(Sung Hye Min)<sup>2)</sup>

김지현(Jihyun Kim)<sup>3)</sup>

###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mediating effects of the preschooler's emotional intelligence between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and exclusion by peers. Subjects were 138 4- to 5-year-old preschoolers(92 boys, 46 girls) and their mothers. Exclusion by peers was measured by the Child Behavior Scale(Ladd & Profilet, 1996),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were measured by the Parenting Questionnaire(Park, 1999), and preschooler's emotional intelligence was measured by the Emotional Intelligence Questionnaire(Lee, 1998).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preschooler's emotional self-awareness mediated the effects of both maternal sensitive behaviors and maternal hostile/refusal behaviors on preschooler's exclusion by peers.

**Key Words** : 또래배척(exclusion by peers),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s),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 I. 서 론

유아는 또래관계를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고 사회적 행동을 통제하며(Rubin & Ross, 1982),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을 발달시

키고 집단에 대한 소속감, 사회적 기술 및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킨다. 그러나 모든 유아가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유아는 또래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놀림을 받고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기도 한다.

<sup>1)</sup> 한북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

<sup>2)</sup>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sup>3)</sup>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 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Jee-Nha Chung, Dept. of Child Care and Education, Hanbuk University, #233-1, Sangpaec-dong, Dongducheon-city, Gyeonggi-do 483-120, Korea  
E-mail : jeenha@hanbuk.ac.kr

Campbell과 Cluss(1983)에 따르면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한 유아기에 또래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한 유아는 또래집단에서 중요한 기술을 학습하지 못하고 이는 또다시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적절히 경험하지 못한 유아는 이후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우울, 불안, 비행 등의 부적응적 특성을 보일 수 있으며(Kupersmidt & Coie, 1990; Parker & Asher, 1987, 1993),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부적응의 기간이 길수록 발달상의 결함이 누적되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기 또래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아기의 부정적인 또래관계가 어떻게 경험되며 이에 기여하는 요인들의 파악에도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유아기의 부정적 또래경험은 의도적이고 공격적인 신체적, 언어적 가해행동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학령기와는 달리 놀이 활동에서 제외되고 무시당하고 거부당하는 행동으로 주로 나타난다(Ladd & Profilet,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배척(exclusion by peers)을 '친구가 거의 없으며 또래들이 좋아하지 않아 놀이에서 선택되지 못하거나 또래에 의해 무시당하는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커지는 유아기의 또래 배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한편, 지금까지 유아의 또래관계에 관심을 가진 많은 연구자들이 부정적 또래관계의 근원을 찾으려는 시도를 해왔으며, 지금까지 규명된 주요한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들 수 있다. 유아기 아동은 발달특성상 타인의 수용과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 경험의 영향으로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실패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귀연·김경

연, 2005; Kupersmidt et al., 1990).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모델링(Dekovic & Janssens, 1992; Elicker, England, & Sroufe, 1992; Putallaz, 1987)을 통하여 유아의 또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예컨대 어머니로부터 지지와 격려, 긍정적 강화를 많이 받는 유아는 이러한 어머니의 행동을 모방하여 또래관계에 적용함으로써 또래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거부적이거나 강압적이고 처벌적인 어머니의 자녀는 어머니의 부정적 행동을 모방하여 또래관계에 적용함으로써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가족과 또래라는 두 가지 사회적 맥락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정보를 밝히는 데는 유용하지만, 이들 간의 관계를 야기하는 구체적인 기제를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서는 부모와의 맥락에서의 경험이 또래 맥락으로 연결되는 기제를 규명하는 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assidy(1999)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정서적인 매개변인을 통하여 유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에게 정서조절에 대한 외적 단서가 되므로, 유아는 어머니가 정서를 유도해내고 정서적인 교환을 조절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또래의 감정 표출을 해석하는 방법과 자신의 정서가 또래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Ladd, 1992). 특히 Salovey와 Mayer(1990)는 개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으로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정서지능이 가족과 또래 맥락을 연계시키는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다.

정서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 인식된 정서를 사고하고 이해하는 과정,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으로,

Goleman(1995)은 일차적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의 질을 통해 유아의 정서지능의 기초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Salovey와 Mayer(1996) 역시 개인의 정서적 기술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하였으며,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정서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감정을 가정 이외의 상황에도 연관시켜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외연구들(김순정, 2001; 김지현, 2000; 이광자, 1997; 이지선·정옥분, 2002; Dunn, Brown, & Bearsall, 1991; Fabes, Eisenberg, & Miller, 1988)에서도 어머니의 민감하고 일관성 있는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생의 초기인 영유아기에 경험하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정서지능의 발달에 중요한 환경적 요소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Dunn과 동료들(1991)은 정서지능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표현하며 삶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기때 유아의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유아의 정서지능과 또래관계를 연결시킨 연구들은 유아가 타인과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며 조절하는 능력을 가질수록 또래에 의해서 더 많이 수용되어, 원만한 또래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성하숙, 2007; 장정애, 1998; 황혜정·김경희, 1999; Cassidy, Parke, Butkovsky, & Braungart, 1992; Hubbard & Coie, 1994).

이러한 연구들은 정서지능의 매개적 역할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족맥락과 또래맥락에 걸쳐 나타나는 일관성에 유아의 정서지능이 기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와의 경험이 또래배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아 정서지능의 매개적인 역할을 검증하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실제로 어떠한 매커니즘을 통하여 유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지능이 또래배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기초로 하여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또래배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을 매개로 하여 또래배척에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검증해봄으로써, 또래 배척의 발달 과정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돕고 또래관계에 문제를 가진 유아를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또래 배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유아의 정서지능이 또래 배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정서지능을 통해 또래 배척에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에서 임의 선정된 3개 기관에 재원 중인 만 4-5세 유아 총 138명(남아 92명, 여아 46명 : 4세 77명, 5세 61

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만 4-5세를 선정한 이유는 4~5세를 거치며 또래상호작용의 빈도와 복잡성이 증가하여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Hartup, 1992), 이 연령대의 유아도 자기조절, 자기 인식과 같은 능력이 발달한다는 Reissland와 Harris (1991), Wintre와 Vallance(1994) 등의 연구에 근거하여 유아기 또래배척과 관련된 정서지능의 영향을 파악해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 유아의 성별 구성은 남아 66.7%, 여아 33.3%로 남아가 더 많았고, 연령별 구성은 4세가 55.8%, 5세가 44.2%로 4세가 더 많았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73.2%, 어머니의 89.9%가 30대 이었다. 부모의 학력에서 아버지는 주로 대졸(64.5%)이 많았고 어머니도 대졸(58.0%)이 가장 많았다. 가계의 월수입은 300만원대(4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0만원대(29.7%)였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67만 5천 원이었으며(통계청, 2008), 본 연구 대상 가정의 약 43.5%가 월평균 수입이 300-400만원 사이에 속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학력과 소득을 같이 고려하여 볼 때, 본 연구 대상 아동의 가정은 중류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2. 측정도구

### 1) 또래 배척

교사의 평가에 의한 또래 배척을 측정하기 위하여 Ladd와 Profilet(1996)가 개발한 「아동 행동 척도(Child Behavior Scale : CBS)」 중 '또래 배척' 항목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또래와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행동 특성을 통해 또래 관계에서의 유능성 및 위협정도를 알아보는 것

으로, '공격적 행동', '비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또래에 의한 배척', '과잉활동-주의산만한 행동', '불안-두려워하는 행동'의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또래에 의한 배척만을 살펴보고자 하였기에 또래배척과 관련된 7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교사로 하여금 평소 유아가 보인 행동을 근거로,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3점)'까지의 3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또래에 의해 배척당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래배척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86으로 나타났다.

###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이미정(1998)의 도구를 수정 사용한 박성은(1999)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민감성(9문항), 과잉보호(10문항), 지시/통제(5문항), 적대/거부(6문항), 반응성(4문항), 애정성(6문항)의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의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민감성 .72, 과잉보호 .72, 지시/통제 .71, 거부/적대 .70, 반응성 .71 그리고 애정성 .69로 나타났다.

### 3) 유아의 정서지능

유아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병래(1998)의 정서 지능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인식·표현능력 7문항, 자기조절능력 8문항, 타인인식 능력 7문항, 타인조절·대인관계능력 9문항으로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는 유아가 각 문항에 나타난 특성을 보

이능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자기인식·표현능력이 .86, 자기조절능력이 .95, 타인인식능력이 .96, 타인조절·대인관계능력이 .88로 나타났다.

###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조사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어머니용 질문지는 선정된 학급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유아를 통해 질문지를 전달하고 회수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정서 지능과 또래배척을 측정하기 위하여 학급의 주교사들에게 평정 척도 실시상의 유의점을 주지시킨 후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유아의 정서지능과 또래배척에 대한 교사 평정은 선정된 학급의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어머니용 질문지가 회수된 유아의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어머니들에게 배부된 질문지는 총 230부였으며, 이 가운데 141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고 그 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경우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어머니 138명의 질문지와 그 자녀 138명에 대해 교사 5명이

평정한 질문지 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1, 2와 관련하여 또래배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 정서지능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배척 간의 관계에서 유아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일련의 절차에 의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각 연구문제 별로 연구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지능 그리고 또래배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

<표 1>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138)

	1	2	3	4	5	6	7	8	9	10	11
1. 모 민감성	1										
2. 모 과잉보호	.08	1									
3. 모 지시/통제	-.06	.20*	1								
4. 모 적대/거부	-.29**	.18*	.60**	1							
5. 모 반응성	.39**	.51**	-.08	-.22**	1						
6. 모 애정성	.38**	.12	-.26**	-.41**	.36**	1					
7. 자기 인식·표현	.38**	.10	.05	-.20*	.27**	.42**	1				
8. 자기 조절	-.00	-.15	-.13	-.07	-.03	.08	.02	1			
9. 타인 인식	.24**	-.02	-.12	-.31**	.18*	.34**	.43**	.13	1		
10. 타인조절·대인관계	.30**	.09	-.02	-.26**	.23**	.33**	.46**	.14	.62**	1	
11. 또래 배척	-.18*	.03	.12	.26**	-.01	-.10	-.26**	-.02	-.13	-.19*	1

\* $p < .05$  \*\* $p < .01$

행동과 또래 배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민감성'은 또래 배척과 부적 상관( $r=-.18, p<.05$ )을 보인 반면, '적대/거부'는 또래 배척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r=.26, p<.01$ ). 즉, 유아에게 민감하지 못하고 적대적·거부적 행동을 자주 보이는 어머니의 자녀는 또래로부터 배척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정서지능과 또래 배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서지능 중 '자기 인식·표현'( $r=-.26, p<.01$ )과 '타인 조절·대인관계'( $r=-.19, p<.05$ )는 또래 배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고 타인의 감정에 적절히 대처할수록 또래로부터 배척당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민감성', '반응성'과 '애정성'은 정서지능의 하위 요인 중 '자기 인식·표현', '타인 인식' 및 '타인 조절·대인관계'와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어머니의 '적대/거부'는 정서지능 중 '자기 인식·표현'( $r=-.20, p<.05$ ), '타인 인식'( $r=-.31, p<.01$ )과 '타인 조절·대인관계'( $r=-.26, p<.01$ )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민감하고 반응적이며 애정적인 어머니의 유아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타인의 감정에 적절히 반응하는 반면,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어머니의 유아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못인식하고 타인의 감정에 부적절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또래배척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또래배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또래배척에 대하여

<표 2> 또래배척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회귀분석 (N=138)

	또래 배척	교사평정
어머니 양육행동		<i>B</i>
민감성		-.17
과잉보호		-.06
지시/통제		-.01
적대/거부		.26*
반응성		.14
애정성		.02
<i>R</i> <sup>2</sup>		.05
<i>F</i>		2.18*

\* $p<.05$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적대/거부'가 유의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beta=.26, p<.05$ ), 이는 어머니가 유아에게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가 또래로부터 자주 배척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교사가 평정한 또래배척의 5%를 설명해주었다.

## 3. 유아의 정서지능이 또래배척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에 따라 유아의 양육행동이 또래배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 또래배척에 대한 유아 정서지능의 회귀분석 (N=138)

	또래 배척	교사평정
유아 정서지능		<i>B</i>
자기인식·표현		-.23*
자기조절		-.01
타인인식		.03
타인조절·대인관계		-.11
<i>R</i> <sup>2</sup>		.05
<i>F</i>		2.71*

\* $p<.05$

<표 4>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 배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유아의 정서지능을 검증하는 회귀분석표 (N=138)

종속변인/독립변인	$\Delta R^2$	$\beta$	df
또래배척/			
1단계 : 유아의 자기 인식 · 표현	.07**	-.23**	131
2단계 : 어머니의 민감성	.01	-.10	130
1단계 : 어머니의 민감성	.03*		
2단계 : 유아의 자기 인식 · 표현	.05**		
1단계 : 유아의 자기 인식 · 표현	.07**	-.23**	131
2단계 : 어머니의 적대/거부	.04*	.21*	130
1단계 : 어머니의 적대/거부	.07**		
2단계 : 유아의 자기 인식 · 표현	.05**		
1단계 : 유아의 타인 조절 · 대인관계	.04*	-.16*	129
2단계 : 어머니의 민감성	.01	-.12	128
2단계 : 어머니의 민감성	.03*		
1단계 : 유아의 타인 조절 · 대인관계	.02		
1단계 : 유아의 타인 조절 · 대인관계	.04*	-.14	129
2단계 : 어머니의 적대/거부	.05**	.23**	128
1단계 : 어머니의 적대/거부	.07**		
2단계 : 유아의 타인 조절 · 대인관계	.02		

<표 3>이 보여주듯이 또래배척에 대하여 유아의 정서지능 중 ‘자기인식 · 표현 능력’이 유의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beta=-.23, p<.05$ ), 이는 유아가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적절히 표현할수록 또래로부터 덜 배척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정서지능은 교사가 평정한 또래배척의 5%를 설명해주었다.

#### 4.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배척의 관계에 대한 유아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배척의 관계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여 유아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Baron과 Kenny(1986)에 따르면, 회귀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첫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간에 상관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과의 상관성이 있어야 하며, 셋째, 매개변인과 종속변인도 관계가 있어야 한다. Baron과 Kenny의 매개 논리에 부합하는 네 가지 경우, 민감성-자기 인식 · 표현-또래배척, 민감성-타인 조절 · 대인관계-또래 배척, 적대/거부-자기 인식 · 표현-또래배척 적대/거부-타인조절 · 대인관계-또래배척,를 가지고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와 같이, 회귀분석 결과 어머니의 민감성은 유아의 자기인식 · 표현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또래 배척을 예측하지 못했다. 반면, 어머니의 민감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유아의 자기인식은 여전히 또래 배척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민감성과 또래 배척 간의 관계는 유아의 자기인식에 의해 매개된 것임을 보

여주는 것이다. 즉, 어머니가 민감한 경우 유아는 자신의 욕구와 기분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인식함으로써 또래에 의한 배척을 덜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적대/거부는 매개변인인 유아의 자기인식·표현을 통제했을 때 그 효과가 감소되어 이들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보여주었다. 즉, 어머니가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경우 유아는 자신의 감정을 잘못 인식하고 반응함으로써 또래에 의한 배척을 자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민감성-유아의 타인 조절·대인관계-또래 배척과 어머니의 적대/거부-유아의 타인 조절·대인관계-또래배척의 경우에는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지능이 또래배척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았으며, 또한 유아의 정서지능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배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또래배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양육행동의 하위 차원 중 '적대/거부'가 또래배척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적대적이고 거부적일수록 유아는 또래배척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부·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불안하고 취약하므로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한다는 연구결과(이경님, 2001; Olweus, 1993)와 일관된

것이다.

어머니의 적대적·거부적 양육행동이 또래배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대인관계 행동의 모델로 기능하여 또래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Parke, Cassidy, Burks, Carson과 Boyum(1992)의 주장에 비추어 설명해볼 수 있다. 즉, 거부적이거나 부정적인 어머니의 유아는 효과적인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여 또래와의 상황에서 불안해하며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아이로 양육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어머니가 거부적·적대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유아의 사고와 감정을 구속하고 강압적으로 훈육할수록 유아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면화된 행동문제를 발달시키게 됨으로써 또래괴롭힘에 기여하게 된다는 Finnegan, Hodges와 Perry(1998)의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배척간의 관계에 대한 이상의 논의는 어머니와의 거부적·적대적인 관계 경험과 유사한 패턴으로 또래맥락에서의 관계가 형성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가족-또래 맥락 간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 요인을 탐색할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둘째, 유아의 정서지능이 또래배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아 정서지능의 하위 차원 중 '자기인식·표현 능력'이 또래배척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가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적절히 표현할수록 또래배척을 덜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갖는 유아가 또래에 의해서 더 많이 수용되어 원만한 또래관계를 맺는다는 선



행연구 결과들(Cassidy et al., 1992; Hubbard & Coie, 1994; Parke et al., 1992, Putallaz, 1987)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유아기에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감정이 발생한 원인을 이해하여 이를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을 지니는 것은 유아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Kurtines, 1989). Calkins(1994)도 정서인식 및 표현이 정서적 각성을 조정하는 책략이라고 지적하면서, 적절한 정서인식 및 표현을 통해 효과적인 대인관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명확히 인식하고 표현하는 단계를 거침으로써 감정을 깨닫는 과정없이 충동적으로 행동을 분출하는 것을 자제시켜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유아는 공격적인 방법으로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만한 또래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Cassidy et al., 1992; Hubbard & Coie, 1994), Eisenberg와 Fabes(1992)도 자신의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는 유아는 공격적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하기 보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으로 분노를 다루기에 또래에게 인기가 더 많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유아의 '자기인식·표현 능력'과 또래 배척에 관한 이상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유아의 정서인식과 표현 능력이 또래배척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역으로 또래배척이 유아의 정서인식 및 표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또래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제외되고 무시당하는 유아는 그러한 관계에서 소외감이나 위축감, 열등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험은 유아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도

록 자극하기 보다는 억제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보다 주의 깊은 해석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또래배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아의 정서지능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민감성과 또래배척의 관계는 유아의 자기인식·표현 능력에 의해 매개되었고, 어머니의 적대/거부와 또래배척의 관계도 유아의 자기인식·표현 능력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감한 어머니의 유아는 자기의 욕구와 기분을 명확히 평가하고 인식함으로써 또래배척을 덜 당하는 반면, 적대적/거부적인 어머니의 유아는 자신의 감정을 잘못인식하고 표현함으로써 또래배척을 더 많이 당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와의 경험을 통해 유아가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이러한 능력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까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선행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어머니와의 경험을 통해 유아의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이 학습된다는 연구결과(김순정, 2001; 김지현, 2000; 이광자, 1997; 이지선·정옥분, 2002; Dunn et al., 1991; Fabes et al., 1988; Parke et al., 1992)와 유아의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이 또래관계와 관련된다는 연구결과(성하숙, 2007; 장정애, 1998; 황혜정·김경희, 1999; Cassidy et al., 1992; Hubbard & Coie, 1994)를 연결시킴으로써, 유아의 정서지능이 가족맥락과 또래맥락을 연결시키는 잠재적인 기제로 작용하는 개념적 모델을 보다 구체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배척을 연결시키는 정서지능의 다른 하위차

원들-자기조절능력, 타인인식능력, 타인조절·대인관계 능력-의 매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또래배척에 대한 설명력이 적게 나타난 <연구문제 1, 2>의 결과와 함께 고려해볼 때, 자기인식·표현 능력만이 매개효과를 지닌다고 결론내리기보다는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강력한 설명력을 지닌 매개 변인을 충분히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어머니의 자기보고에 의해 측정하였는데, 양육행동의 질적 수준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문지와 함께 실제 부모-자녀 상호작용 과정에 대한 관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또래배척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아 정서지능의 설명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개인 내·외적 변인들을 포함하여 또래배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집의 수가 많지 않아 회귀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추후에는 매개변인에 대한 경로모형을 설정하는 경로분석이나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을 통하여 또래배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가족과 또래를 연계시키는 잠재적 과정의 본질을 좀 더 이해하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김귀연·김경연(2005). 아동의 위축 및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관계 : 거부적 양육행동, 또래

괴롭힘, 부정적 부모표상 및 부정적 또래표상의 인과효과. **아동학회지**, 26(6), 247-266.

김순정(2001).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적 부적응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지현(2000). 유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성하숙(2007). 유아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의 관련성 연구. 우석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경남(2001).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아동의 행동문제, 내외통제소재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8), 37-52.

이광자(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감성지수(EQ)와의 관계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병래(1998).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이지선·정옥분(2002).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기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17-35.

장정애(1998). 초등학생의 감성지능과 학업성취, 학교적응, 사회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황혜정·김경희(1999).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3), 139-151.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Calkins, S. D. (1994). Origin and outcom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In N. A. Fox (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pp.53-72).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Vol.59, nos, 2-3, serial no. 240). Chicago : Univ. of Chicago Press.

- Campbell, S. B., & Cluss, P. (1983). Peer relationships of young children with behavior problems. In K. H. Rubin & H. S. Ross(Eds.),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skills in childhood*(pp.323-351). New York : Stringer-Verlag.
- Cassidy, J. (1999). Relations in Relationships. In J. Cassidy & P. R. Shaver(Ed.), *Handbook of attachment*.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Cassidy, J., Parke, R. D., Butkovsky, M. L., & Braungart, J. M. (1992). Family-peer connection : The role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Dekovic, M., & Janssens, J. M. A. M.(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925-932.
- Dunn, J. Brown, J., & Bear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48-455.
- Eisenberg, N., & Fabes, R. A. (1992).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 S. Clark(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Vol.14). Newbury Park, CA : Sage.
- Fabes, R., Eisenberg, N., & Miller, P. (1988). *mother's attitudes toward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emotional responsivenes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Philadelphia.
- Finnegan, R. A., Hodges, E. V. E., & Perry, D. G. (1996). Preoccupied and avoidance coping during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7*, 1318-1328.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ntam Books.
- Hartup. W. W. (1992). Peer relations in early and middle childhood. In V. Vanhasselt & M. Hersen(Eds.), *Handbook of social development*(pp.257-281). New York : Plenum Press.
- Hubbard, J. A., & Coie, J. D. (1994). Emotional correlates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20.
- Kertines. C. A. (1989). *Developing self-esteem and creativity in the preschool chil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ami.
- Kupersmidt, J. B., & Coie, J. D. (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350-1362.
- Ladd, G. W. (1992). Themes and theories : Perspectives on processes in family-peer relationships. In R. D. Parke & G. W. Ladd(Eds.), *Family-peer relationships : Modes of linkage*(pp.3-34).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add, G. W., & Profilet, S. M. (1996). The Child Behavior Scale : A teacher-report measure of young children's aggressive, withdrawn, and prosocial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32*, 1008-1024.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 Blackwell.
- Parke, R., Cassidy, J., Burks, V. M., Carson, J. L., & Boyum, L. A. (1992). Familial contribution to peer competence among young children : The role of interactive and affective processes. In R. D. Parke & G. W. Ladd(Eds.), *Family-peer relationships*(pp.107-134). Hillsdale. NJ : Erlbaum.
- Putallaz, M. (1987). Maternal behavior and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58*, 324-340.
- Reissland, N., & Harris, P. (1991). Children's use of display rules in pride-eliciting situatio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9*, 431-435.
- Salovey, P., & Mayer, J.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Salovey, P., & Mayer, J. (1996).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Paper presented at Sejong Cultural Center. Seoul, Korea.

Wintre, M. G., & Vallance, D. D. (1994). A develop-

mental sequence in the comprehension of emotions : intensity, multiple emotions, and val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0*, 509-514.

---

2008년 4월 30일 투고, 2008년 6월 18일 수정  
2008년 7월 11일 채택